

# 5등급제 전환에 막힌 N수생 수시



**지 상 범**  
의사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는 대한민국 대입 역사상 파괴적인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고교 내신 체제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는 첫해인 만큼 당초 교육계 이목은 내신 변별력 약화와 대학별 고사 부활 여부에 쏠려 있었다. 그러나 정작 대학들이 내놓은 시행계획안이 마주한 첫 번째 균열은 전혀 엉뚱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 바로 'N수생에 대한 수시 진입장벽의 전면적 통제'다. 서울 주요 대학이 일제히 졸업생의 수시 지원 자격을 차단하면서 입시 시장은 현역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이른바 '세대 간 대입 리그 분리'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맞이했다. 이는 입시 패러다임의 구조적 전복을 의미한다.

대학들이 단행한 N수생 제한 정책의 본질은 내신 산출의 이중 결합 거부에 있다. 9등급제 시절 상위 4%만이 될 수 있었던 1등급 가치와 5등급제 체제에서 10%로 확대된 1등급 가치를 대학이 평면 비교 평가하기란 불가능하다. 과거의 데이터와 완화된 데이터를 하나의 저울에 올렸을 때 발생할 공정성 시비와 수험생들의 소송 리스크를 대학들이 '지원 자격 박탈'이라는 초강수로 원천 차단한 것

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졸업 연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회의 불평등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입시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다시 한번 훼손되었다.

통계는 입시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입증한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2028학년도 수시 중 N수생 지원이 제한되는 전형의 총 선발 인원은 무려 4894명에 달한다. 전년도 1942명과 비교하면 단 1년 만에 2.5배가 폭증했다. 이는 10개 대학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24.2%에 해당한다. 상위권 대학 수시 원서 네 장 중 한 장은 졸업생이 아예 가위질당한 셈이다. 특히 정량평가 중심의 학생부교과전형은 사실상 '재학생 전용 리그'로 재편되었다. 전체 제한 인원의 83.3%인 4079명이 교과전형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각변동은 양 집단에 극단적인 외길 선택을 강요하며 대입의 명암을 갈라놓는다. 고교 재학생들에게는 교과전형이라는 확실한 '방공호'가 마련되었다. 최상위권 N수생 유입이 원천 차단되면서 내신 등급 비율 확대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N수생들은 수시 퇴로가 끊긴 채 정시 올인이라는 단선적 선택지로 내몰렸다. 우수한 내신을 확보해 둔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이를 활용할 기회 자체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수시 카드가 확종 일부와 눈물로 좁아짐에 따라 이들은 강력한 수능 변별력을 확보해야만 하

는 정시 전장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는 재수 비용 상승과 수험 기간 장기화를 유도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며 졸업생들의 심리적 압박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구조적 변화가 시차를 두고 현재 입시 시장에 기묘한 '풍선효과'를 촉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학원가와 자료집들이 쏟아내는 메시지는 하나다. "올해가 9등급제 내신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2028학년도부터 수시 진입이 불가능해진다는 공포감은 전국의 반수생과 재수생들을 울해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시 시장으로 급격히 끌어당기고 있다. 졸업생들이 올해 마지막 교과 카드를 대거 던지면서 수시 합격선은 폭등할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보의 과잉과 사실 학원가의 발 빠른 마케팅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지양분 삼아 성장한다. 정부와 대학은 이 거대한 혼란을 방지해서는 안 되며 즉각적인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당국은 9등급제 졸업생과 5등급제 재학생 성적을 공정하게 보정할 표준 변환 점수 모델이나 정성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학에 권고해야 한다. 대학이 평가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지원 자격을 차단하는 행위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저버린 처사다.

/JSB진로전략연구소장

# 산업용 전기요금, 정교한 설계 필요해



**유 혜 온**  
산업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 2021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70% 이상 오른 가운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원가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인하 논의는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전력 수급, 한국전력의 재무 여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제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미국을 제외하면 여전히 OECD 주요국이나 유럽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문제는 절대 수준보다 상승 속도다.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경기 둔화와 맞물리면 제조업계의 체감 부담을 키웠다.

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은 있지만 방식과 시점은 따져봐야 한다. 에너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중동 정세는 휴전 국면에 들어섰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황이다.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도 변수다. LNG 장기계약 가격은 통상 수개월 후행해 반영되는 만큼, 지난 2~3월 가격 상승분이 7~8월 하계 전력 수요기 원가에 반영될 수 있다.

전력시장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 가스공사의 발전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은 지난 5월 7.5%, 6월 7.9% 연속 인상됐다. 전력 도매가격(SMP)도 지난 1월 103.54원에서 5

월 121.91원으로 상승했다.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가 큰 상황에서 원가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전기요금을 일괄 인하할 경우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핵심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인하는 에너지 수요 관리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돌아갈 정책 효과도 낮아질 수 있다.

현실적인 방향은 전력비 부담이 실적 약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전력 다소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단계적·선별적 조정이다.

전기요금은 기업 투자, 수출, 일자리에도 연결되는 산업 정책의 한 축이다.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라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하는 정교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

/dhalehdhale@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5일 (음 5월 11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60년생** 집을 떠나면 고생만 가득합니다. **72년생** 뒷사람의 도움으로 큰 일을 해결하게 됩니다. **84년생** 과음은 절대 하지 마세요.
- 49년생** 뜻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1년생** 공과사를 확실히 구분하세요. **73년생** 사리판단을 분명히 하세요. **85년생** 불분명한 행동은 주위로부터 신용을 잃게 하는 것이니 삼가하세요.
- 50년생** 의지할 곳이 없으니 외롭고 서러운 마음입니다. **62년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74년생** 사업에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86년생** 남의 말을 너무 그대로 믿지 마세요.
- 51년생**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주세요. **63년생** 각별히 가정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75년생** 욕심은 금물입니다. **87년생** 때로는 고집을 조금 꺾는 것이 좋습니다.
- 52년생** 친구들에게 회망을 걸지 마세요. **64년생** 귀인이 떠났습니다. **76년생**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88년생** 세상과는 거리가 먼 신선의 모습입니다.
- 53년생**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65년생** 휴식을 취하세요. **77년생** 정신적으로 안정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89년생** 사업을 하고 있다면 때가 좋지 못해 실패할 수 있습니다.
- 54년생** 동쪽으로의 여행은 길합니다. **66년생** 가정에 크고 작은 경사가 생깁니다. **78년생** 회사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90년생** 서쪽에 있는 사람만 가까이하지 마세요. 해롭습니다.
- 55년생** 돌아오는 것이 큰 것이라 길입니다. **67년생**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79년생** 이곳저곳에서 이익을 들이느라 바쁩니다. **91년생** 남쪽에 좋은 인연이 있습니다.
- 56년생** 큰 거래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80년생**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92년생** 함께하는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 57년생** 자녀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69년생** 오늘이 바로 길일입니다. **81년생** 한가지 일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93년생**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 58년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70년생** 쉽게 들어오는 돈을 쉽게 내겁니다. **82년생** 오늘은 빨간색이 귀하게 행운의 색입니다. **94년생**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밀고 나가세요.
- 59년생** 금전운과 이성운 모두 좋은 시기입니다. **71년생**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로 삼가하세요. **83년생** 가까운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95년생** 좋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호국의 달에 이순신

필자가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이다. 탄생일은 양력으로 1545년 4월 28이며 전사일은 1598년 향년 54세로서 11월 19일이다. 설명이 필요 없는 그분의 생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용병과 전술의 장군이다.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부와 외부에서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뛰어난 지략과 전술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니, 군함을 단 한 척도 잃지 않고 23전 23승 불패 신화를 이룬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이뤄낸 명장이었던 것이며 임진왜란이 끝난 후 장군은 적국인 일본에 의해서 더 연구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효심이 깊고 아들 사랑 또한 지극하여, 셋째 아들 이편이 아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의 '난중일기'에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가슴 찢어지는 아픔으로 가득하다. "대충 뜯고 곁을 보니 '통곡'이란 두 글자가 쓰여 있어 면이 전사했음을 알았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다! 하늘이 어찌 이렇게 어질지 못하실 수가 있는가. (중략) 혼은 죽고 가족만 남아 부르짖고 서글피 울 뿐이다. 하룻밤을 넘기기가 한 해와 같다." 그럼에도 장군은 부하들이 있는 곳에서는 울지 않았는데, 후담에는 하인 강막지(姜莫只)의 소금 창고에 숨어서 울었다고 나와 있다. 그 열악한 물자와 환경 속에서도 혼신을 다해 전쟁 준비를 하고 전 세계가 경탄하는 승리를 이뤄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조선의 운명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 당시 조정에서 유일하시되 장군을 옹호하고 편을 들었던 서예 류성룡의 장비록에 의하면, "이순신은 말과 웃음이 적었고 용모는 단아했으며, 항상 몸과 마음을 닦아 선비와 같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세익한빌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9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204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